

스피노자의 윤리사상과 그 제한성

정 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선행철학에 대한 연구에서는 진보적이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제한성과 미숙성을 똑똑히 가려보는것이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8권 416페이지)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물론철학자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유럽사상사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스피노자의 윤리사상도 근대유럽윤리사상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에찌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은 무엇보다먼저 개별물에 내재하는 자기 보존의 경향인 《고나투스》(의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각각의 사물은 자기가 미치는 한 자기의 존재에 고집하려고 노력한다.》(제3부 정리6) 즉 그에 의하면 모든 개별물에는 가능한껏 자기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내재되고있다. 어떠한 개별물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파괴에로 향할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신체가 《고나투스》를 가진다는것은 인간신체가 자기 내부의 생리적인 균형을 외적환경과의 물질대사를 통하여 가능한껏 보존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는것으로 된다. 그에 의하면 개별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것은 그 개별물의 《고나투스》와 개개의 상황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된다. 다시말하여 개개의 상황속에 있는 개별물의 움직임은 그 상황에 대한 《고나투스》의 필연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나투스》는 개별물의 현실적본질이다.

정신과 신체는 병행하기때문에 인간정신에도 인간신체의 《고나투스》에 대응하는 《고나투스》가 존재한다. 이것이 의지 또는 반성의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욕망으로 불리운다. 인간정신이 개개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유하는가는 그 《고나투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결정된다. 즉 자기 보존의 욕망은 인간정신의 현실적본질이고 이 욕망을 인간정신이 스스로 누리는것은 불가능하다. 다시말하여 인간정신이 일정한 상황에서 《먹고싶다》, 《마시고싶다》라고 생각하는 밑바탕에는 《살고싶다》라는 근원적인 욕망이 존재하고 그 욕망은 그 본성에 속하는것이며 이것을 의지의 힘에 의하여 누르는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본질상 인간을 자연적존재, 생물학적존재로 취급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은 다음으로 전통윤리에 대한 도전이며 새로운 윤리의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서는 신이나 자유의지가 부정되고있다. 그에 의하면 《살고싶다》라는 욕망은 인간정신의 현실적본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것이 덕이고 초월신으로부터 보수(특히 사후의 보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덕을 실천하여야 한다.》라고 한 당시까지의 전통윤리를 부정한것으로 된다.

물론 스피노자는 제1종의 인식의 수준에 있고 신과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으면서 욕망이 인간정신의 현실적본질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전통윤리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통윤리가 없으면 사회가 무질서에 빠지는것으로 인식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스피노자에 의하면 이런 전통윤리는 제2종의 인식이상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 부정하는것은 《무로부터 유가 생기는것과 동일하게 불가능하다.》(제4부 정리20비교)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는 제2종이상의 인식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가질수 있는 새로운 윤리를 《에찌까》후반에서 자세히 론하였다. 그의 새로운 윤리란 자기 보존의 욕망을 긍정하는 윤리이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덕의 기초는 자기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고나투스〉 그것이고 또 행복은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는 곳에 존재한다.》, 《덕은 그자신을 위하여 구해져야 할것이고 덕보다 가치있는것, 덕보다 우리에게 유익한것, 그것을 위하여 덕이 추구되어야 하는것, 그러한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제4부 정리 20 비교) 즉 욕망에 따르는 자기 보존이 덕이고 이 덕은 어떠한 보수도 기대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인 목적, 행복 그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덕의 정도가 자기 보존의 노력과 실천의 정도에 관계된다고 하면서 《각자는 자기 리익을 추구하는것에서 다시말하여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는것에 보다 많이 노력하고 보다 많이 그것을 이룰수 있는데 따라서 그만큼 유덕하다.》(제4부 정리20)라고 하였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이 종교적윤리사상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의미에서는 당시로서 일정한 의의가 있었으나 사실상 개인리기주의를 본성으로 하는 신흥부르조아지의 리익을 철저히 대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스피노자의 윤리사상은 다음으로 수동적욕망과 능동적욕망에 대한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욕망 또는 《고나투스》가 충족되는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저애되는것이 비참이다.

욕망충족이 기쁨으로 되는 한에서 욕망에 따라 자기 보존을 덕으로 본 스피노자의 리해는 쾌락주의라고도 할수 있다. 그러나 그의 쾌락주의는 감성적쾌락주의가 아니라 이성적쾌락주의이다. 그것은 스피노자가 수동으로서의 욕망(수동적욕망)과 능동으로서의 욕망(능동적욕망)을 구별하고있기때문이다.

스피노자에게서 수동적욕망이란 인간신체가 외적물체로부터 자극됨으로써 인간정신내에 생긴 욕망이며 능동적욕망이란 인간신체가 외적물체로부터 자극되는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정신내에서 생긴 욕망이다. 그에 의하면 수동적욕망은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사멸할것이다. 그러나 수동적욕망은 자주 위협으로 된다. 왜냐하면 인간정신은 수동적욕망 또는 거기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수동적감정 레하면 감성적쾌락에 대한 파잉욕망과 타자에 대한 격한 증오에 의하여 몸을 해칠수 있기때문이다. 즉 수동적인 자기 보존의 욕망은 자기 파멸의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능동적욕망에는 그러한 위험성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능동적욕망은 인식으로 향하고 능동으로서의 인식은 이미 본바와 같이 제2종이상의 인식 즉 충전한 인식, 진실한 인식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보존에 기여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보존의 욕망을 긍정한다는 스피노자의 윤리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기 보존의 욕망속에서 능동적욕망을 무조건 긍정하고 수동적감정을 능동적욕망에 의하여 통제하는것으로 된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유익한것은 지성 내지 리

성을 할수 있는만큼 완성하는것이고 이 점에 인간의 최고행복이 존재한다.》(제4부 부록 제4항)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정신은 능동적욕망에 의하여 리성을 움직이는 한 다음과 같이 느끼게 된다. 인간호상간의 안정한 사회적결합에 있어서 인간정신은 지적패락을 구하고 획득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자기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존중하고 사회적뉴대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자기 보존을 1차적으로 놓으면서도 그것만을 절대시하면 사회적뉴대가 불안정해진다고 보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리성의 지도》에 따르는 자기의 리익을 주장하여나섰던것이다. 사실 호상갈등과 투쟁이 지배하고있는 계급사회에 있어서 추상적이며 초계급적리성에 따르는 사회적 안정이란 공론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스피노자의 료리사상은 다음으로 감정의 구조에 관한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료리는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욕망에 의하여 통제한다는 면을 가진다. 그러한 통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질수 있는 감정구조를 미리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에찌까》의 3부에서 전개된다.

스피노자는 욕망, 기쁨, 비참이 인간의 3개의 기본감정이며 다른 모든 감정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기본감정의 아종이라고 하였다. 실례로 사랑이란 외적원인의 관념을 동반한 기쁨이고 증오란 외적원인의 관념을 동반한 비참이다. 즉 사랑과 증오란 각각 기쁨과 비참에 어떤 종의 인과적신념을 조합시킨것이다. 그리고 자기 보존의 욕망을 현실적본질로 하는 인간정신은 x를 사랑한다면 y라는 증오의 대상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품을것이고 y를 증오한다면 x를 사랑하려는 욕망을 품을것이다. 이것은 자기 보존으로 향하는 근원적인 욕망으로부터 파생된다. 말하자면 2차적욕망이다. 이 2차적욕망이 충족될 때 품게 되는 기쁨은 2차적기쁨이고 2차적욕망이 저애될 때 품게 되는 비참은 2차적비참이다. 또 그것들에 있는 어떤 종의 인과적신념이 조합되면 2차적사랑과 2차적증오가 생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호의란 1차적사랑의 대상에 선을 이루는 사람에 대한 2차적사랑이고 분개란 1차적사랑의 대상에 악을 이루는 사람에 대한 2차적증오이다. 또 질투란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쁨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픔으로 보여주는 한에 있는 증오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질투란 2차적인 기쁨과 2차적인 비참에서 생기게 하는 한에 있는 1차적증오이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감정이 인식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과 대상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감정의 계급적성격을 도외시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계급적처지, 직접적으로는 사상의식의 계급적성격에 따라 같은 사물현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진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감정과 반동계급, 착취계급의 감정은 서로 상반된다.

스피노자의 료리사상은 다음으로 감정제어법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을 망하게 할 위험성이 높은 수동적인 감정은 특정한 인간, 사물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과 인간에 대한 증오일반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집착적인 사랑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항에 균형을 고르롭게 향하게 해야 할 정신의 사유능력을 한점에 묶어놓기때문이며 둘째로, 인간에 대한 증오는 많은 경우 《증오로 돌아가기》를 낳고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뉴대를 곤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정신을 이 사랑과 증오로부터 어떻게 제어할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스피노자는 《에찌까》 제5부 전반에서 론하고 수동적감정을 제어할 방도를 제시하였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각자는 자기 및 자기의 제 감정을 레하면 절대적으로는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는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힘을 가진다. 그러므로 특별히 노력하여야 할것은 각각의 감정을 할수 있는만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하여 정신이 감정으로부터 떨어지고 자기가 명석판명하게 지각하고 만족하는것을 사유하는것이다. 즉 감정 그것은 외적원인의 사상으로 부터 분리하여 진실한 사상과 결합시키게 하는것이다.》 (제5부 정리4 비교)

여기서 스피노자가 《각각의 감정을 할수 있는만큼 명석판명하게 인식》한다고 쓴것은 수동적감정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사랑과 증오의 감정을 분석한다는것이다. 즉 대상 x에 대하여 사랑(증오)을 품는다고 말하는것은 《어떤 종의 기쁨(비참)을 느끼는 동시에 그 기쁨(비참)의 원인은 x라는 신념을 품는다.》는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것이다. 이것은 사랑과 증오를 기본적감정 및 인과적신념이라는 구성요소로 분석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분석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 기쁨(비참)의 원인은 x이다.》라는 인과적신념-스피노자의 표현에서는 《외적원인의 사랑》-에 대하여 《그 기쁨(비참)의 원인은 y이다.》 혹은 《그 기쁨(비참)의 원인은 x, w, v, u, t이다.》라는 옳은 인과적인식을 대치시킨다. 이 대치가 성공한다면 x에 대한 사랑(증오)은 파괴되거나 희박해진다.

스피노자의 결정론으로부터는 도대체 어떠한 사물이나 인간이 기쁨과 비참의 유일한 원인으로 될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움직임은 그에 선행하는 《원인의 무한한 련결》에 의하여 결정되고있기때문이다. 인간정신은 그러한 필연성을 인식하는 한 《감정에 대하여 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혹은 감정으로부터 움직임을 받은것이 보다 적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제어법이 언제나 성공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수동 내지 감정의 힘은 인간 그밖의 움직임 내지 능력을 룡가할수 있고 그리하여 그러한 감정은 집요하게 인간에게 들어붙게 되기》때문이다. 자연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외부세계로부터 강력한 자극을 받을 때에는 나쁜것이라는것을 알았다고 해도 수동적인 감정에 필연적으로 예속되는것이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감정제어법이 합리적인식에 토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며 그것이 만능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는것을 그가 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실 감정의 근본바탕에는 사상의식이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노자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있다.

스피노자의 룡리사상은 다음으로 《신에로의 지적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주목된다.

《신에로의 지적사랑》이란 그의 제3종인식과 결부되어있다. 그에 의하면 제3종인식이란 개별물을 신이라는 자기 원인의 자기 산출에 의한 필연적결과로 인식하는것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정신의 최고의 《고나투스》 및 최고의 덕은 사물을 제3종인식에 있어서 인식하는데 있다. 인간은 정신의 제3종인식이 성립하는 한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신이라는 원인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인데 그것이 바로 《신에로의 지적사랑》으로 된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신을 실체 즉 자연과 분리시키고있다고 볼 때 자연필연성의 인식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고 이것을 《신에로의 지적사랑》으로 규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아 스피노자의 룡리사상은 종래의 오랜 전통 룡리사상에 반기를 든것으로서 당시로서는 일정한 합리성을 띠고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신 흥부르쥬아지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한것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